**OCI 자기소개서**

직무 : 생산기획/품질관리

**1. [Chance] 기회는 오는 것인가, 찾아가는 것인가? 본인의 경험과 함께 생각을 서술하시오.**

기회는 내가 ‘찾아가는 것’

 제 신조는 ‘노력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또와 같은 요행수를 바라고 살기보다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며 그렇게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안 될 것이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제 노력은 이러한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해병대에서 수송병으로 근무할 때, 제게 주어진 역할은 운전과 간단한 정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찾아 하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의욕이 넘쳤기에, 더 많은 기술을 배워 정비병 역할까지 해냈으며 행정병의 사무 업무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또한 자대의 교관들이 타 부대로 나가 있을 때, 저는 교관의 임무까지 오차 없이 잘 수행하여 선임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점차 부대에서 제 태도와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사단장 운전병으로 선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단장 운전병은 사단장을 보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였고, 또 병사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각종 공부를 하며 자기계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보다 중책을 맡는 동시에 개인의 시간까지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기회’와도 같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더욱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주 가끔, 행운이라는 이름으로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기다려서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노력하며 기회를 찾는다면 기회와 조우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기회는 더 자주, 더 기꺼이 제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지금 기회를 향해 스스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OCI의 일원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Challenge]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적이 있는가? 이를 성취 혹은 실패했던 경험을 서술하시오.**

“도전은 힘들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상당하다”

  현재 제 제일과제는 OCI에 입사하는 것입니다. 신소재공학을 전공하였기에 자연스럽게 도전정신을 가지고 OCI 입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각오한 부분입니다. OCI에 입사하여 제 역할을 다해낼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적은, 캡스톤디자인 수강을 통해 특허출원을 시도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캡스톤디자인은 공과대학 학생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다룬 수업인데, 여타 학과처럼 졸업논문을　쓰지 않고 학부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작품을 기획하고 설계하여 실제 제작까지 하는 전 과정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산업현장에 걸맞는, 보다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종합적인 교육과정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 임하며 한번 특허를 내보겠노라는 원대한 목표를 품고, 화장실 하수구의 잔여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전 과정에 임했으나 아쉽게도 시간과 비용부족 문제 등으로 특허출원은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제품을 개발하는 전 과정을 직접 해냈던 소중한 경험입니다.

 도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만큼 그 가치는 아주 큽니다. 설령 도전의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그 과정에서 도전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제가 선 자리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저는 많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저는 여기에서 OCI의 일원이 되고자 새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도전의 결과에 대해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지만,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는 신념으로 당당하게 OCI에 도전합니다.

**3. [Change] 큰 변화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가? 그 계기는 무엇이었으며 변화를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교환학생을 통한 인생의 전환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는 바로 미국 교환학생입니다. 1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쌓았으며, 제 인생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즐겁게 생각하다 보니 교환학생에 적응하는 데까지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학교 한인학생회에서 간부로 활동하며 Korean Festival이나 International Food Festival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였고, 휴일을 이용하며 그랜드캐넌이나 라스베가스, 토론토 등 다양한 장소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쌓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호스트 패밀리 프로그램은 제가 미국문화를 체험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고, 당시 기숙사 라디오에서 싸이의 노래가 흘러나와 모두들 춤을 추곤 했는데 제가 앞장서면서 더욱 즐겁게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얻은 것은 유명 관광지에서의 사진이 아니라, 현지에서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야말로 참된 재산이라는 제 아버지의 조언 아래, 저는 어려서부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신뢰를 얻는 것, 훌륭한 인간관계를 쌓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더 버는 것보다 가치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때문에 저는 인간관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며, 미국에서의 교환학생 역시 이러한 제 노력이 뒷받침되어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현지에서는 무조건 현지인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며 그 고유의 문화를 체험하려 했으며, 이는 제가 한층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의 교환학생은 제게 아름다운 추억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게 하고 더 열린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더 넓은 땅에서 더 넓어진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기반으로 더 성장한 저는 OCI의 구성원이 되어 유감없이 제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기 바랍니다.

**4. 자신의 성장과정 및 강점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시골, 종갓집에서의 성장기”

  장남으로 태어나 충청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비교적 시골에 속했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집에서 무척 멀었습니다. 하지만 학창시절 내내 단 한 번도 지각결석 없이 성실하게 다녔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빛나고 있는 제 성실성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갓집에서 자란 덕분에 저희 집에는 제사가 많았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여러 친척들의 출입이 많았습니다. 그런 덕분에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친척들과도 단단한 유대관계를 쌓아온 것은 물론이요, 철저한 예의범절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종갓집이라는 조금은 엄격한 집안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운 것을 나누는 봉사인’

  처음 대학에 입학하여 군대까지 전역한 뒤, 저는 편입을 하였습니다. 전역 후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편입에 성공한 뒤 저는 제가 배운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주관하는 해외봉사단에 참여하여 2주간 미얀마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미얀마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것이었고,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최대한 가르쳐 주겠노라 다짐하고 열성을 다했습니다. 직접 한글 교재를 만들어 쉽고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한국의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서 K-pop 노래와 춤을 연습하여 학생들 앞에서 직접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미얀마 친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 봉사활동이 끝날 때에는 최고 선생님으로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배운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경험은 제게 아주 뿌듯한 기억입니다.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는 미소천사

  제 별명 중 하나는 바로 미소천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대학교 선배님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이 말처럼 늘 활력이 넘치고 입가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배려심이 강하고 타인에게 친절한 성격인지라 누구와도 금세 친해지는 성격이며, 상대방의 단점을 찾기보다는 항상 장점을 발견하고 이를 칭찬해 주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친화력을 발휘하는 타입이며, 사람들의 호감을 받습니다.

  이러한 성격 덕분에 저는 누구보다도 팀플레이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나 혼자 잘되겠다는 경쟁심에 불타 내 의견만 고집하기보다는, 조직을 생각하며 전체가 잘 되도록 행동합니다. 조직의 일원으로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함께 어울려 일하는 것에 자신이 있습니다.

****